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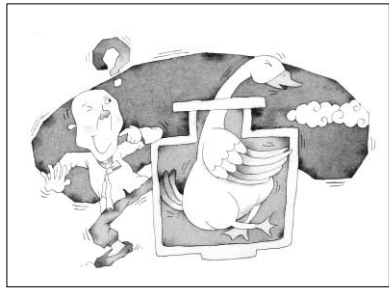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55> 병속의 새

김성동의 소설<만다라>는 베스트셀러 일뿐 아니라 영화까지 만들어져 대박을 터뜨렸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 때 (1970년대)까지 생소한 개념인 화두를 '병속의 새'라는 표현을 빌려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공간 하나로 소설 한 편을 만들었으니 가장 긴 착어(着語)해설이라고 하겠다. 그것도 모자라 시청각교재(영화)까지 남의 손을 빌려 만들도록 했으니 공간집으로서 안이비설신의를 모두 만족시킨 불후의 해설서가 된 셈이다.

이 공간은 남전선사와 육공대부의 선문답에서 기원한다. 육공대부는 남전산이 소재한 지양(池陽) 땅의 행정책임자인 태수 신분으로 자주 남전 선사를 찾아뵈었다. 어느 날 '병속의 새'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안목이 열리게 된다. 원문은 새가 아니라 거위이다.



기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와불과 입불 모두 조성이 가능한 큰 바위였던 모양이다.

“그렇게 하시죠.”
불상을 새겨도 좋다는 말 같은데 긴가민가 하는 표정이 아무래도 '절대성 발언'으로 느껴진 모양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대로 물었다.

“불상을 새기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

아니 불상을 새겨도 좋고 새기지 않아도 좋다고 한다.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알송달송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선 지식이라면 일도양단해야 하거늘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다. 또 달려다.

열일방일(拈一放一)이라고 했는가? 하지만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놓아야 하는게 세상 이치다. 예전에 원승이를

모든 걸 다 취하려 하다간 모두 잃기 마련 일체 선입전 벗어나야 제대로 볼 수 있는 법

“옛날에 이 병속새다가 거위를 한 마리 길렀는데, 점점 자라 나오지 못하게 했다. 병을 깨뜨릴 수도 없고 거위를 죽일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꺼낼 수 있겠는가?”

유리병 속에 든 거위를 어떻게 해야 거위와 병 모두 상처를 입히지 않고 꺼낼 수가 있을까? 진퇴양난이라고 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릴 수도 없으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라 하겠다.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정치현상에서 모든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저마다 각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 행정관청을 압박했을 때마다 태수는 이 화두를 떠올렸을 것 같다. 저절로 참구가 되었을 것이다. 관리는 관리에게 맞는 공안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런 육공대부였기에 어느 날 남전선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저희 집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어떤 때는 앉고 어떤 때는 눕습니다. 불상을 새

잡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한다. 목이 잘록한 유리 병 속에 들끓듯한 사랑을 넣고서 그들이 다니는 숲 길목에 두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새끼 원승이가 쪼르르 달려와 병속에 손을 넣고서 사랑을 쥐게 된다. 손을 뺐을 때와는 달리 주먹을 쥔 손은 병의 좁은 목을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드디어 멀리서 뗏목을 놓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목숨이나? 사랑이나? 목숨을 구하려면 사랑을 놓아야 하고 사랑을 얻으려면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런 원승이로서는 그 판단이 쉽지 않다. 사랑을 버리기가 아깝기 때문이다. 모든 걸 다 취하려고 하다가는 모든 걸 잃기 마련이다. 출세간적 화두해결은 그보다 더하다. 거위도 병도 사랑도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고서 일체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모든 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정안(正眼)이 열리는 법이다. 그래야 진짜 살길이 생긴다.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마음챙김’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자연히 집중력은 현저히 떨어졌고, 알아차림은 ‘뚝! 뚝!’ 끊겼다. 그러다 염불위빠사나를 해보니, 수행의 힘이 생겼다. 그간 생각조차 못했던 미세한 의식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찰나의 생명을 꿰뚫어 보게 됐다. 일상사 속에서도 ‘알아차림’의 집중력은 커져만 갔다.”
전경지(60·경북경주)

“‘붓도’ 염불은 현상들의 미세한 일어남과 사라짐 틈에서 알아차림을 더욱 생하게 했다. 생활 속에서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는 버릇이 붙게 됐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끈질긴 망상이 일어날 때도 ‘붓도’ 염불은 효과적이었다. ‘당신도 여래심호를 갖춘 붓다입니다’라고 염불하니, 망상이 쉽게 사라졌다.”
이애형(51·천안)

‘염불위빠사나’ 아세요?

태국 아짠 차 선사님이 주창한 수행법… 붓다의 주격인 ‘붓도’ 염불

● 끊임없는 마음챙김... 집중력 증대 효과 탁월

‘염불위빠사나’. 일반인은 물론 불교 수행자들에게 낯선 수행법이다. 지난 2004년 김연권 법사(사진)가 국내에 처음 소개하면서 불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상주 남장사 토굴에서 정진 중인 김법사는 먼저 ‘염불위빠사나’에 대해 소개했다.

“태국 고승 아짠 차(Phra Ajahn Chah, 1918~1991) 선사가 개발한 수행법입니다. 태국의 수행자 70% 이상이 염불위빠사나를 하고 있지요. 이 수행법은 팔리어로 붓다의 주격인 ‘붓도(Buddho)’를 염불합니다. 자나 깨나 ‘붓도’를 염불하면, 관찰대상인 몸과 마음·느낌·법 등의 사념처(四念處)를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붓다에 대한 끊임없는 마음챙김이 염불위빠사나의 핵심인 셈입니다.”

김 법사는 ‘붓도’ 염불이 염불위빠사나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찰나찰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끈질기게 관찰하면서, 미세한 몸과 마음의 흐름과 변화를 짚어내기 때문이다. 쉼 새 없이 이어지는 매순간의 변화를 ‘붓도’ 염불로 집중하는 것이다.

김 법사는 “염불위빠사나는 집중력 증대에 뛰어난 효과를 지닌 염불수행(佛誦念)과 수행단계가 잘 밝혀져 있는 위빠사나의 장점을 집대성한 탁월한 수행법”이라며 “현재 태국 수행자의 대다수가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수행과 보트’ VS ‘위빠사나와 염불’

염불위빠사나가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김 법사는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단점부터 말했다. 먼저 사마타(정신집중·止)는 깨달음까지 이르는 연결고리가 취약하며, 위빠사나(알아차림·觀)는 수행자 근기에 따라 집중력 배양이 더디다고 평가했다.

“염불위빠사나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마타적인 염불을 병행한 염불위빠사나 수행은 집중력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도움을 주죠. 사마타 수행에는 40가지 주제가 있는데, 염불이 우리나라 수행자들에게 잘 맞습니다. 수행에 능숙한 사람은 홀로 강을 헤엄쳐 건널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보트가 필요하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위빠사나만큼, 보트 탈 사람은 염불(사마타)과 위빠사나를 병행해야 하죠. 염불이 보트인 셈입니다.”

김 법사는 무엇보다도 염불위빠사나가 수행자들에게 신심을 길러주고,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염불위빠사나가 ‘내 마음이 부처’ 자리에 있고, 부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망상 일면 즉각 알아차리고 더 빠르고 크게 ‘붓도’ 염불하며 망상의 원인 살펴 마음집중

● ‘실상염불’이 염불위빠사나의 완성

그럼, 염불위빠사나는 기존의 염불과 위빠사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부처님은 의식의 흐름을 못 보면, 못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위빠사나는 흐름의 생멸을 알아차리는 수행법이고, 염불은 그 흐름에 집중하는 수행법입니다.”

김 법사는 이어 염불위빠사나와 염불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염불에는 칭명(稱名,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 관상(觀想, 부처님의 공덕과 모습을 관하는 염불), 실상(實相, 본래불성을 깨닫는 염불) 등이 있습니다. 먼저 타력적인 칭명염불은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타적입니다. 관상염불은 위빠사나적이고, 실상염불은 깨치고 나서 하는 것으로 위빠사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회청반조(回聽反照)’의 ‘붓도’ 염불

염불위빠사나의 핵심인 ‘붓도’ 염불.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선 김 법사는 ‘붓도’를 입으로 소리 내어 염불하고, 그 소리를 자신의 귀로 들을 것을 주문했다. 다분히 <능청경>의 ‘이근원통(耳根圓通)’ 원리를 닮았다.

“‘붓도’ 소리가 ‘귀뿌리’(耳根)와 부딪치면 소리를 듣는 ‘귀의 의식’(耳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감각, 소리의 크기, 길이 등의 특징과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공장 관찰해야 합니다.”

‘붓도’ 염불을 할 때 망상이 일어나면, 즉각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이후 망상에 신경 쓰지 말고 ‘붓도’를 더 빠르게, 크게 소리 내어 염불하든가 마음속으로 염불을 해 망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또 망상을 일으키는 마음과 ‘붓도’를 염불하는 마음을 동시에 관찰해 어느 쪽이 강한지, 둘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인지도 살펴야 하고, 그 다음에 ‘붓도’를 염불하는 마음 쪽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 일상에서 잘 할 수 있는 법?

김 법사는 ‘붓도’ 염불법 5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입으로 ‘붓도’ 소리 내어 귀로 들으면서 하는 방법(이와) 소리를 내어 외듯, 마음속으로 염불하던 ‘붓도’를 일으키는 마음 보기 △ ‘붓도’ 염불하면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경행하기 △ 경행 시 발의 감각과 이와 연계된 느낌, 인식, 반응 보기 △ 앞의 3가지 방법을 통한 감정과 마음 상태의 변화를 관하기 △ ‘붓도’ 염불하면서 여래심호(부처님의 10가지 이력) 하나하나 떠올리며 공덕을 찬탄하기 등을 설명했다.

‘붓도’ 대신 다른 명호를 염불해도 무관하다. ‘붓도’ 대신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옵마니반메홀’ 등을 염불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염송하는 자체가 정신집중의 수행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글·사진·김철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선 번호는 언제든 무료입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중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rcntr.com E-mail: heegun@avatar21.com

(법인) 어린이집 원장 모집 공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실 원장님을 모집합니다

채용인원 및 근무지
● 인원 : 1명 ● 근무지 : 서울 강남 지역

응시자격
● 아동관리학과를 전공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만 35세 ~ 50세 미만인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한 스님이나 재가자
● 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을 구비한 자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제출서류 및 서류전형
● 제출시기 : 2006년 3월 11일(토)까지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명함판 사진 부착), 자기소개서(A4 3매 내외)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증, 신형증명서, 수계증사본 등
● 제출처 : (우) 100-71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봉은사
● 전형시기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면접일정 개별 통보

문의사항
02) 3218-4813 / 3218-4821

기 타
● 자기소개서는 가족사항, 성장배경, 주요경력, 자격증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명당유혈(명당유혈) 명당유혈

이것이 첫번째이다. 명당유혈(명당유혈) 051)865-9933

전도제 49제와 결연인 처방법 전회주이면 안내 제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유혈(명당유혈)은 각 사찰, 암자, 절학관에만 있습니다.
혹은 여러 복당어리 함금당어리 복기면인 복기면어리와 함금당어리 명당유혈(명당유혈)입니다.

복기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변 세운으로 변화하여 좋이하게 됩니다.
점이나 공경이나 조상포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복기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월이 사라지고
희서는 일들이 잘되며 믿음,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 안인 가정집, 절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복기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화하여 희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계나 삼계에 지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러나 노력해도 안되는분. 시주가 안좋은분.
분들은 명당유혈(명당유혈) 처방을 해보십시오.